

광주비엔날레 혁신 공청회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 주최로 6일 오후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창조적 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다양한 발전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치·재정 독립…‘글로벌’ 행사로 도약을”

〈글로벌+로컬〉

예산, 지방비 의존 탈피 광고수입 확보 시스템 구축 시급

감독 선임제 개선·직원 재교육 시장 대응능력 신장 등 제안

“광주비엔날레가 한국을 대표하는 비엔날레가 됩니까?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혁신’이라는 칼을 꺼내든 광주비엔날레의 미래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위원장 정동채 대표이사)는 6일 오후 광주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비엔날레 창조적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지난 1년 동안 발표를 꺼려왔던 ‘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 연구요약 보고서’가 공개됐고 재단 내 사업조직 신설, 글로벌 로컬의 조화, 조직 인력 배치 문제 등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 지역 작가와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큰 아쉬움을 남겼다.

◇용역 보고서에 드러난 재단의 문제

＝재단이 지난해 ㈜주스컴퍼니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년 동안 국내외 많은 비엔날레가 창설되면서 광주비엔날레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특히 상하이비엔날레, 요코하마트리엔날레 등 후발 아시아권 비엔날레의 강세가 광주비엔날레의 경쟁력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제행사 졸업제도’로 인해 국비와 지방비에 의존하는 광주비엔날레 예산의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제5∼8회에는 40억원, 9회부터는 30억원의 국비를 받아왔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전체예산 대비 14% 수준인 지방비를 늘리고, 8회 이후 ‘0’원 수준인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예술감독 선임 제도 개선’ ‘재단 마케팅 디렉터 도입’ ‘어린이

비엔날레를 통한 미래 소비자 육성’ ‘민간 자본 참여 확대’ ‘승급 및 직급체계 개선’ 등 50개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미 진단을 마치고 방향까지 제시했는데 광주비엔날레가 왜 실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로컬과 글로벌의 조화＝토론회에서는 기금 확보 방안, 조직 개편 문제, 이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광주비엔날레 글로벌 정책 : 광주비엔날레 엔터프라이즈’를 주제로 발제한 이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부장은 광주비엔날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운영부장은 발제에서 “광주비엔날레가 한국 내 광주에서 만들어진 문화이벤트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로컬과 글로벌의 조화를 추구하는 글로벌이라는 커다란 화두 앞에서 지역 경제와 재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창의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비엔날레 조직발전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이용진 사무처장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대표이사를 선임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임명된 이사들에게 국제 네트워크 확보, 자원 조성 등 실질적 역할을 맡길 것을 주문했다. 또 직원 재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미술시장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이상섭 전 부산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재단에 파견된 광주시정 공무원들을 장기적으로는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다른 비엔날레와 비슷한 수준의 국고 지원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이남 작가는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외국인이 오면서 지역 정서를 읽지 못해 소외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또 “‘글로벌’을 목표로 자립하고 도약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광주비엔날레만의 차별성 확보, 비엔날레 평가제도 도입,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풀리 사업 재검토 등이 논의됐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제2남도학숙 2017년말 개관 목표

광주시·전남도, 240억씩 부담 250실 규모 연구 의뢰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광주·전남 출신 학생을 위한 제2남도학숙이 오는 2017년 하반기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2남도학숙을 2017년 하반기(2학기) 개관하기로 하고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에 ‘제2남도학숙 입사 수요 분석 및 확충방안 연구과제’를 의뢰했다. 시·도는 250실, 500명 수용 규모로 양 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 방향을 제시했으며, 예산 규모는 48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 1월 연구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건립 방식, 수용 인원, 재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심사와 시·도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기본계획 승인을 각각 받은 뒤 관련 예산을 2015년 5월 추경에 반영한다는 로드맵도 그렸다.

건립 방식은 ▲신축 ▲서울시 공공기숙사 사용 ▲은평구 장학관 매입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할 경우 실시설계와 디자인공모를 거쳐 2016년 상반기 착공해 2017년 하반기 개관하고, 서울시 공공기숙사 사용과 은평구 장학관 매입의 경우도 개관 시기는 2017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남도학숙 수용규모는 850명 정도로, 매년 치열한 입사 경쟁 탓에 제2남도학숙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남도 산하기관장 잇단 공모

개발공사·복지재단·문화산업진흥원 대표 공석

민선 6기 들어 전임 지사가 임명한 전남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거나 임기가 만료되면서 빈 자리가 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적임자와 차점자를 이낙연 전남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어서 누가 낙점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전 시장의 임기는 2016년 7월까지이지만 민선 6기 출범 이후 관광 등 일부 사업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전남도가 자체 감사에 나선 것은 물론 정밀경영진단을 위해 외부 용역까지 발주하면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사장은 전남도 추천 2명, 전남도

의회 추천 3명,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이 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원장이 공석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임원추천위원회는 7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뒤 최고점자와 차점자를 이 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전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도 대표이사 공모에 나서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응모서류를 접수한다. 역시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 복수 추천하게 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남도에는 공기업 1곳과 출자·출연기관 19곳 등 모두 20곳의 산하 기관이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혈액 한방울로 치매 진단한다

KIST 연구팀, 센서 개발 추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실 김영수 박사팀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농도변화를 혈액 검사로 손쉽게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쥐 실험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서 지나치게 증가할 때 발생한다. 이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결국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생쥐의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를 다양한 분량으로 넣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킨 뒤 혈액을 뽑아 베타아밀로이드의 양을 분석했다. 이 결과 뇌 안의 베타아밀로이드 농도가 올라가면 혈액 속의 베타아밀로이드도 비례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KIST 개방형 연구사업단(단장 김태승)은 이 연구결과를 이용해 매우 적은 양의 베타아밀로이드를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중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과학 리포트’ 10월호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2015학년도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1·2회, PM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학점 이수(36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최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구분	일시
입학원서 작성	2014. 11. 7.(금) ~ 2014. 11. 21.(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4. 11. 7.(금) ~ 2014. 11. 21.(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함) 창구 2014. 11. 7.(금) ~ 2014. 11. 21.(금) 09:00~18:00
전형일	2014. 12. 3.(수) 10:00~
합격자 발표	2014. 12. 18.(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
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친환경농업학/식품·차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20명) : 전자컴퓨터공학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 윤영웅 병원 ▲ 상무지구 병원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증-59153호

※부작용:수술초기 아각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